



VACHERON CONSTANTIN
GENÈVE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2023년 3월 27일



VACHERON CONSTANTIN
GENÈVE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 현대적인 디자인과 바세론 콘스탄틴의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을 바탕으로 탄생한 모델.
- 엄격하게 반영된 전통과 탁월한 마감 기법으로 끊임 없이 강조하는 독창적인 전문성이 구현된 오픈 페이스 다이얼
- 칼리버 2162 R31: 오픈워크 다이얼에 투르비용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워치는 아방가르드 미학의 표현 및 기계적인 정교함에 대한 요구와, 독창적인 전문 기술을 공유하려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NAC(N-acetylcysteine) 전해 처리 기법으로 완성된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2162 R31 무브먼트 구조를 시계 앞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픈워크 디자인은 기계식 시계의 힘을 강조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와 투르비용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실용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인디케이터가 다이얼을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세그먼트를 따라 끝까지 움직이고 나면 그 시작점으로 돌아와 다시금 작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레트로그레이드 전용 핸즈가 원의 일부에 활모양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는 시간, 분, 초, 요일, 날짜와 같이 순환하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충격과 마모 저항성 측면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엄격한 규칙성을 요구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특별한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시기는 1920년대입니다. 당시 아르 데코의 미학적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했던 메종은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쳐 보이며 화려한 감각을 표현해 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등장한 레퍼런스 47245와 레퍼런스 47247을 계승하는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오픈페이스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에 20세기 초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의 또 다른 시그니처로 손꼽혔던 부분 오픈워크 다이얼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오픈페이스 다이얼은 시계의 기술적인 요소와 정교한 디테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직경 41mm에 두께가 단 11.07mm에 불과한 18K 핑크 골드 케이스가 탑재되는 새로운 타임피스에는 핑크 골드 폴딩 버클이 장착된 그레이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과 함께 착용할 수 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옐로우 골드, 옉닉스, 록 크리스탈, 라피스 라줄리 아르 데코 클락 (Ref. Inv. 10548) - 1927년



스켈레톤 디자인과 플래티넘 소재가 적용된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의 레퍼런스 47247-2002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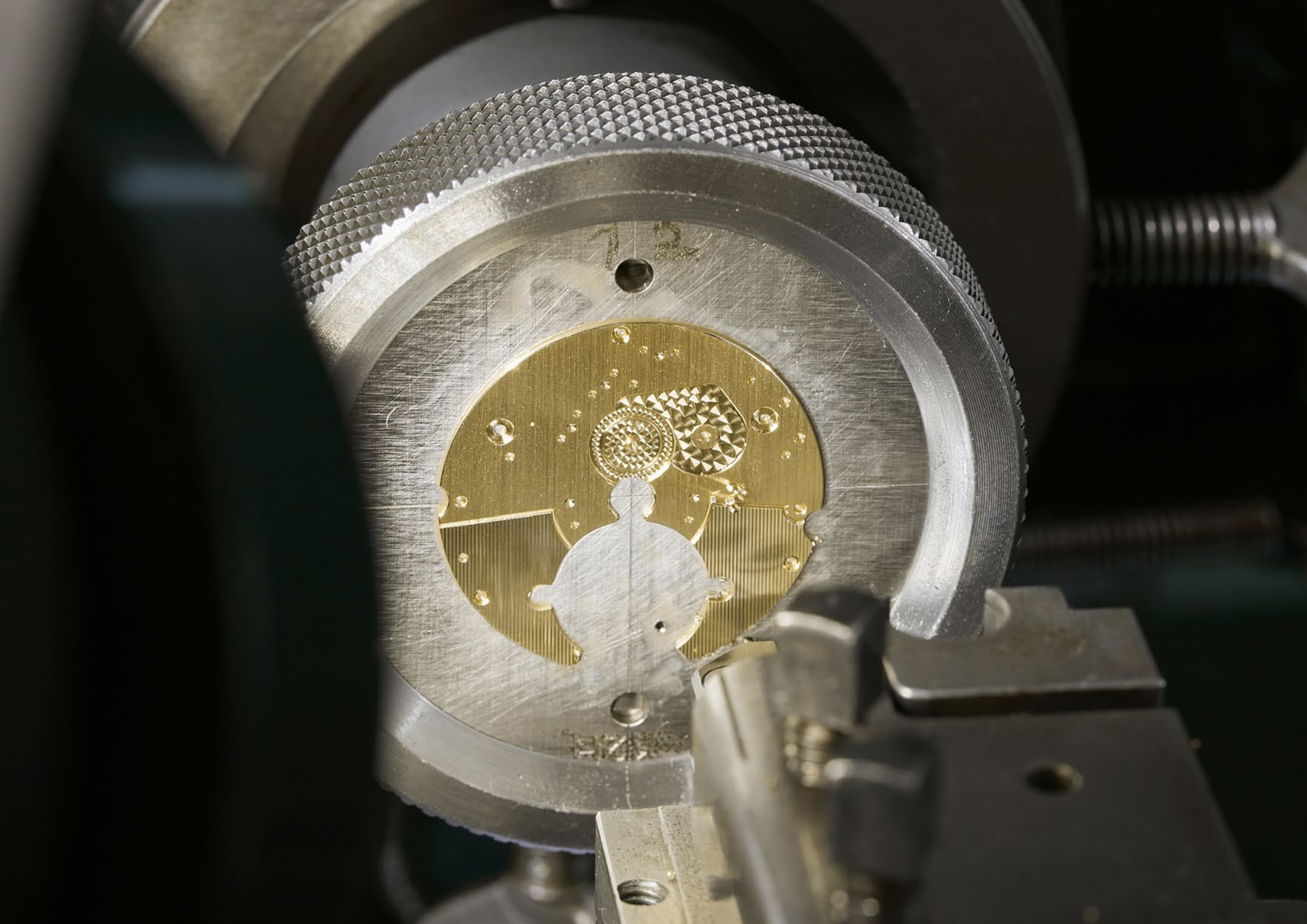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계단형 원형 케이스와 러그, 플루티드 케이스백, 슬림한 베젤, 레일웨이 미닛 트랙, 양면 각면 처리된 도핀 핸즈, 바톤형 골드 아워 마커와 같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계승한 Traditionnelle 컬렉션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은 제네바의 위대한 하이 워치메이킹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과거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독창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한 원동력을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장인과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이 3년간의 소통 및 작업 과정을 거쳐 완성해낸 이 타임피스에 여러 수작업 마감 기법을 번갈아 적용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기묘세 디테일이 돋보이는 오픈워크 사파이어 다이얼에서는 인하우스 칼리버 2162 R31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매커니즘이 구현되는 플레이트에서는 얇은 갈바닉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적용한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표면 처리 기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직 핸드 브러싱 처리를 적용하여 전용 연마재로 매끈하게 완성한 상단 부분의 표면은 섬세한 빛 효과를 연출하며, 수공 기묘세 기법과 돋보이는 하단 부분 또한 더욱 풍부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는 투르비용과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이면서도 워치메이킹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특유의 스타일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말테 크로스를 파낸 형태로 구현된 투르비용 캐리지에서도 수공 베벨링 처리 및, 투르비용을 가로지르는 원뿔 형태의 바는 수공 폴리싱 처리되어 마치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듯한 완벽한 모습을 선사하는 세련되고 정교한 손길이 돋보이는 다양한 마감 기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TRADITIONNELLE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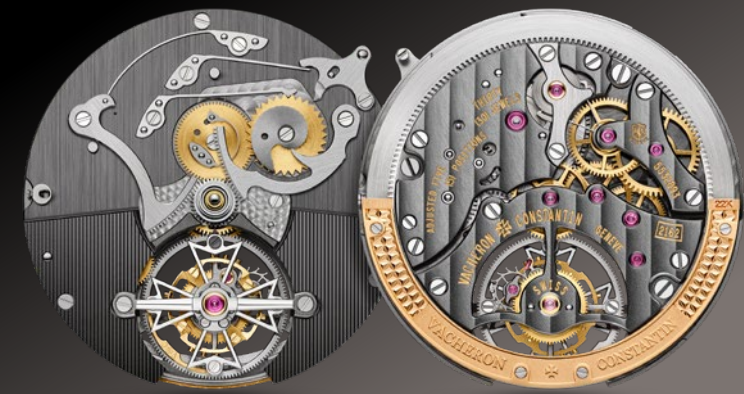
TECHNICAL DATA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제네바 홀마크 인증이 돋보이는 Traditionnelle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워치는 242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구동됩니다. NAC 처리된 슬레이트 그레이 마감 기법, 72시간 파워 리저브, 장식 디테일의 골드 로터가 돋보이는 칼리버 2162 R31은 하이 워치메이킹이라는 개념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칼리버에서는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열망 사이의 뚜렷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게 되죠.”

시간당 18,000회 진동하며 두께가 단 6.25mm에 불과한 칼리버 2162 R31에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와 투르비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기술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 만남은 오픈워크 다이얼을 통해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는 레트로그레이드 메커니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제네바의 위대한 전통이 깃든 탁월한 품질의 워치메이킹 마감 기법으로 완성된 현대적인 디자인의 메인 플레이트 위에서 투르비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MADE IN SWITZERLAND

1010T

VACHERON

CONSTANTIN

VACHERON

CONSTANTIN

2033070

VACHERON CONSTANTIN
CALIBRE 1010T
MADE IN SWITZERLAND



VACHERON CONSTANTIN
GENÈVE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요약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워치에는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정교한 기계식 타임피스에 대한 수요, 독창적인 전문 기술을 공유하려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NAC 표면 처리 기법으로 완성된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2162 R31 무브먼트 구조를 시계 앞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픈워크 디자인은 기계식 시계의 힘을 강조합니다. 특히 레트로그레이드 메커니즘이 구현되는 플레이트 상단 부분의 수직의 핸드 브러싱 처리,

그리고 하단 부분의 기묘세 기법이 더욱 풍부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와 투르비용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실용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More info: <https://youtu.be/Ok7d6JP7C3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오픈페이스 다이얼은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전문 분야인가요?

바쉐론 콘스탄틴은 오래전부터 “오픈페이스”로 알려진 디스플레이를 선보여 왔습니다. 1918년에는 부분 오픈워크 다이얼이 탑재된 최초의 바쉐론 콘스탄틴 타임피스가 탄생했죠. 이 시계는 천문학적 캘린더를 탑재한 포켓 워치였으며, 당시 디자인 측면에서 놀라운 혁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뒤, 메종은 설립 247주년이었던 2002년에 레퍼런스 47247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오픈워크 다이얼 컨셉에 주목했습니다. 247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이 타임피스는 직경 37mm의 플래티넘 케이스가 탑재되어 있었고,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6시 방향에 요일을 표시하는 서브다이얼과 함께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메커니즘을 감상할 수 있는 오픈워크 다이얼을 갖추어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오픈페이스 감성을 고스란히 구현해낸 모델이었습니다.

오픈페이스 다이얼을 도입하는 전통은 어떤 식으로 이어졌나요?

2019년에 선보인 Traditionnelle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는 현대적인 스타일과 전통 사이의 긴장감을 활용한 타임피스로, 메종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년 후 2021년, 새롭게 재해석된 Traditionnelle 오픈페이스 컴플리트 캘린더가 출시됩니다. 직경 41mm의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와 오픈워크 사파이어 다이얼을 결합한 레퍼런스는 유서 깊은 전통의 워치메이킹 및 유산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무한한 독창적 가능성을 펼쳐 보였습니다.



포켓 워치 - 1918



Traditionnelle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 - 2019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안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새로운 Traditionnelle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워치가 앞서 언급하신 모델을 계승하는 타임피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새로운 레퍼런스는 오픈워크 다이얼을 탑재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며, 동시에 투르비용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여기에 놀라운 부품 마감 기법을 결합한 매력적인 스타일을 선보일 것입니다. 메종은 클래식한 핑크 골드 케이스 안에 정교한 기술력과 아름다운 워치메이킹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칼리버 2162 R31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감상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디자인은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강렬한 시그니처를 고스란히 구현합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아름다운
워치메이킹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스타일 앤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안
셀모니 Christian Selmoni







VACHERON CONSTANTIN
GENÈVE

TRADITIONNELLE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소개

오픈페이스 디자인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대담한
기술력이 결합된 다양한 마감 기법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는
칼리버 2162 R31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tourbillon retrograde date openface

References	6010T/000R-B638
Calibre	2162 R31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31 mm (1 3/8") diameter, 6.25 mm thick Approximately 72 hours of power reserve 2.5 Hz (18,000 vibrations/hour) 242 components 30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on tourbillon carriage Tourbillon Retrograde date
Case	18K 5N pink gold 41 mm diameter, 11.07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Openface, assembled in four parts: - 18K gold slate grey openface plate with an hand-guilloché upper-part, surrounded by an opaline flange with railway minute-track - 18K gold applied hour-markers - Sapphire glass - 18K gold tourbillon second's ring 18K 5N pink gold hour & minutes hands 18K gold blackened date hand with white crescent
Strap	Grey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 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5N pink gold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